

물과 술

Water and Alcohol

우리는 사랑을 하며 어떻게든 변하고, 어쩌면 어떻게해서도 변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변하길 원하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변하면서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변주곡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를 수 없이 변주한 바리에이션들로 곡을 완성시킨다.

변주의 폭이 큰 바리에이션은 테마의 멜로디와 리듬을 잊게 하기도 한다.

사람이, 삶이, 사랑이.

하나의 변주곡이라면, 나는, 내 삶은, 나의 사랑의 테마는 무엇이었고, 그것들은 어떻게 변주되어 왔을까. 테마에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리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애초에 나의 테마는 무엇이였을까.

극 중 인물의 표현을 빌려, '어쩌다보니', 태어난 삶이었고, 어쩌다보니 내가 되었고, 어쩌다보니 사랑을 하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할 수 없다. 어쩌다보니, 지금을 살고 있더라.

물이라는 남자와 술이라는 여자가 등장한다.

그 둘은 어쩌다보니 그렇게 변해왔고, 또 그렇게 변할 것이고, 또 어쩌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담고자 한다.

S# 안나의 집. 내부. 낮

암전. 하천소리가 들린다.

화면, 밝아지며 하천, 섬진강, 바다, 계곡, 목련, 천변의 왜가리의 모습 등 이곳저곳의 모습이 짧게 짧게 지나간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사운드. 그 위로 안나의 나레이션.

안나(NA)

사랑 노래를 쓰겠다고 마음먹자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으면서 사랑해달라고 말했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치며, 앞에 놓여진 오선지에 악보를 그리는 안나.

insert. 옆에 놓인 커피잔에는 커피가 담겨져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울리는 초인종 소리.

커피잔을 들어 한모금 마시는 안나. 밖은 신경쓰지 않고 계속 작곡을 하고 있다.

이내 문을 두드리는 탕탕탕 소리가 난다. 개짖는 소리도 난다.

몇 번 더 탕탕탕 소리가 나고. 개 짖는 소리도 몇 번 더 들린다..

안나(NA)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는 말만 입에서 맴돈다.

뭔지도 모르는 것을 부를 수는 없기에, 이 노래는 사랑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단 어찌면 내가 술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에 관한, 곡을 쓰게 된 이유에 관한 노래일 것이다.

S# 카페. 내부. 낮

어두운 화면 너머로 비소리가 들린다.

잔잔한 피아노 OST Theme.

화면에 타이포 'Theme.'

화면이 밝아지면, 카페 안 창가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상연.

안나(NA)

그를 처음 본 날은 비가 왔었다.

카페 문 열리는 종소리.

안나(VO)
안녕하세요... 혹시 상연 씨...

상연
아, 안나씨?...

상연의 맞은편에 우산을 접으며 앉는 안나. 어깨쪽이 비에 젖어있다.

안나
(어색한듯 웃으며) 아, 네 안녕하세요.

상연
(어색한듯 웃으며) 안녕하세요.

잠시.

안나
(어색한 듯) 아... 엄청 떨리네요.

상연
그러게요...

잠시.

안나
어제 밤에 나와서 무슨 얘기 해야하나... 엄청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할지...(어색한듯 웃는다)

상연
아... 일단 뭐 좀 시킬까요?

안나
아, 네!

메뉴판을 들여다 보는 둘.

안나
칵테일도 파네요.

잠시.

안나
혹시 술 마셔도 될까요?

상연
술이요?

안나
아, 좀 그런가요?

상연
아니요~ 상관없어요.

안나
저는 그럼... 마티니요.

상연
여기, 주문이요~

직원(VO)
네.

상연
마티니랑 콜드브루 한 잔씩 주세요.

직원(VO)
네~

상연
감사합니다.

잠시.

안나

그... 나이가 저보다 어리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상연

아, 저는 상관없어요. 안나씨는 괜찮으세요?

안나

네, 뭐,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연

다행이네요...

안나

그러게요...

잠시.

안나

작가시라고 들었어요.

상연

네...

안나

어떤 글 쓰세요?

상연

시랑... 소설 쓰고 있어요.

안나

오... 멋진 일 하시네요.

상연

(멋쩍은 듯 웃으며) 별로 멋진 건 없어요...

잠시.

안나
상연씨가 쓴 글 읽고 싶어요

상연
지금요?

안나
어, 지금 볼수 있어요?

상연
지금은 근데... 너무 창피해서...

안나
아... 그래도... 작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건데...

상연
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안나
나중에 언제요?

상연
안... 창피해지면요.

안나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상연
네. 진짜로 보여줄게요.

안나
좋아요.

잠시.

상연
안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안나

학원에서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요.

상연

아이들 좋아하세요?

안나

애들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피아노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애들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2달만 지나면 생각이 바뀔꺼예요.

상연

아... (잠시) 나중에 저도 가르쳐주실 수 있어요?

안나

음...말 잘들으세요?

상연

아... 말 잘듣는 학생만 가르치세요?

안나

아니요. 가르쳐 드릴게요.

상연

네... 고마워요.

잠시.

직원

마티니랑 콜드브루 나왔습니다.

상연

아, 감사합니다.

테이블에 놓여지는 커피와 마티니.

안나

상연씨는 뭐 좋아하세요?

상연
좋아하는 거요?

안나(VO)
네, 뭐 영화나 음악이나 게임이나 그런 거요.

상연
저는... 물을 좋아해요.

안나
물이요?

상연
네... 뭐 강이나 호수... 바다... 이런 물이요.

안나
음... (잠시) 왜요?

상연
물이 많이 있는걸 보고 있으면 좀 평화롭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비나 눈도 좋아하구요.

안나
음...

잠시.

상연
안나씨는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안나
아, 저는 술 좋아해요.

상연
술이요?

안나
네, 술이요.

상연
(그렇냐는 듯) 음...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술자리의 분위기를 좋아한다거나...

안나
그런건... 아니구요, 술 마시는 시간이나, 분위기나... 음식이나... 상황에 어울리는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마다 나는 맛이나 향도 좋아하구요.

상연
술 좋아하시는구나...

안나
네. 상연씨는 술 좋아하세요?

상연
잘 안마셔요.

안나
왜요?

상연
술마시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나
아... 보통 작가들은 술 좋아하지 않아요?

상연
아... 그렇긴 한데... 저는 좀 안받더라구요...

안나
그렇구나... (잠시)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 마시거든요.

상연

다행이네요.

안나
네.

잠시.

안나
비가 많이 오네요.

상연
네... (잠시) 비오는 날 봐서... 좋아요.

안나
네?... 아... 저도... 뭐, 좋아요.

잠시.

안나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이라는 말 있잖아요?

상연
네.

안나
그게 무슨 뜻이었죠?

상연
음..... (우물우물하다) 좋은 말 같은데요?

안나
(그렇냐는 듯) 음~

빗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점점 커지며 어우러진다.

title 물과 술
Ost Theme end.

S# 천변. 낮

insert. 동네에 있을 법한 천의 물 흐름

천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전썸과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분위기의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Ost variation 1.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

둘의 대화가 이어질때는 음악의 볼륨이 낮아지고, 정적이 흐를때는 커지고를 반복한다.

상연(NA)

다음주, 그녀는 우리 동네로 온다고 했다. 나는 동네 시장에서 파는 도넛을 샀고, 그녀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다. 우리는 같이 천변을 걸었다.

동네에 있을 법한 천변. 안나는 맥주 두 캔을 양손에 들고 걷고 있고, 상연은 도넛이 담겨있는 기름종이를 들고 걷는다.

cut to 천변 의자

둘은 천변을 바라보고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다.

안나는 맥주를 마시고, 상연은 천변을 보고 있다.

둘다 좋은 날씨에 편해 보인다. 둘은 맥주를 마시기도, 도넛을 먹기도 하면서 적당히 쑥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안나

동네가 예뻐요.

상연

네. 여기가 아마 2002년 월드컵 하면서부터 꾸며졌을거예요.

안나

(그렇냐는 듯) 음~

도넛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안나와 상연. 적당히 산책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흐르는 천을 구경하기도 한다.

상연
봄이네요.

안나
그러게요... (잠시) 좋아하는 꽃 같은 거 있어요?

상연
목련이요.

안나
(흥미롭다는 듯)오~ 왜요?

상연
하얗잖아요.

안나.
하얀거 좋아하세요?

상연
네

안나
(음흉하게 상연을 바라보며 그렇냐는 듯) 오... 보기보다 야하네요~

상연
네?...

안나
아니예요.

잠시.

상연
이름도 예쁘잖아요. 목련. (잠시) 이름에 '꽃'이 안들어가는 꽃이 예쁜거 같아요.

안나는 맥주를 흘쩍이며 상연의 말을 듣는다.

상연

좀 오래된 칵테일 중에 목련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안나

그런 칵테일은 못본 것 같은데요.

상연

우유를 조금 넣을 것 같기도 하고...

잠시.

상연

저희 앞 집에 목련이 봄마다 피어요. 그 옆에는 가로등이 있구요. (잠시) 밤에, 집에 들어올 때면, 하얀 목련이 하얀 가로등 빛을 받는데... 뭐랄까? 정말 하예요. 그러면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서서 그 목련을 봐요. 목련은 조금 일찍 피니까, 조금 쌀쌀한 날씨에 목련 향도 새하게 나는거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얀 목련을 보면서, '야~ 목련은 정말 하얗다. 정말 슬프다.' 그런 생각을 하는거죠.

상연은 쑥스럽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 안나도 그런 상연의 모습에 미소를 보인다.

insert. 흘러가는 천변의 물 흘러나오는 ost.

안나

저기 저 새 보여요?

성연은 안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본다.

상연

네. 새가 크네요.

안나

보면 모가지가 길잡아요. 왜가리라서 그래요.

상연

(그렇냐는 듯) 음~ 왜가리는 목이 긴가 봐요.

안나

(그건 아니라는 듯)음~ 왜가리가 목이 긴게 아니라, 목이 긴 새를 왜가리라고 불러요.

상연

네?

안나

모가지가 길면.... 그 새는 왜가리에요.

상연

목이 긴 새는 많잖아요.

안나

(잠시) 성연 씨가 앞으로 목이 긴 새를 보면 왜가리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상연

(조심스럽게) 왜요?

안나

저는 앞으로 목련을 보면 성연 씨 생각이 날거 같으니까요.

잠시.

천변의 물과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화면은 강물을 비춘다.

상연(VO)

그래요.

안나(VO)

그게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상연(VO)

(난감하다는 듯) 아...

안나(VO)
됐어요. 저 같거예요.

둘의 목소리 점차 페이드 아웃되며

상연(VO)
같이 가요...

안나(VO)
그럼 저 혼자가요?

잠시.

안나(VO)
됐어요. 빨리와요.

Ost variation 1 end.

S#차안. 내부. 낮

insert. 창밖의 풍경
OST variation 2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2.'

안나(NA)
언제는 그의 차를 타고 서울 근처의 계곡으로 향했다.

운전하고 있는 성연, 안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고 카메라는 둘의 뒷모습만을 잡고 있다.

상연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안나
아뇨...

상연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안나

술을 많이 마셨어요.

상연

아... (잠시) 여행 좋아해요?

안나

여행 싫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연

있지 않을까요?

안나

왜요?

상연

저희 아버지는 여행을 꼭 가족끼리만 다녀요. 뭐, 친구라던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한 번도 안가시더라구요. 물어보니까, 가족들 두고 자기만 좋은데 가는 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잠시)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행가기전에 그런 생각이 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누구랑 못가서 싫다. 누구랑 못가서 싫다. 하는 식으로요.

안나

음... 다 데리고 가면 되죠?

상연

음... 사랑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면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안나

음.. 그런가요.

잠시.

안나

여행의 사전적 정의는 새로운 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상연
그런가요.

안나
네. 모든 사람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술을 마실 필요가 있어요.

상연
음... (잠시) 왜요?

안나
어제랑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면, 어제의 나에서 바뀐 게 없잖아요.
사람은 바뀌고 싶어라 하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상연
그런가요... 저는 한 10년전이랑 바뀐게 없는 것 같아요.
관성이라는 게 어떤 물체에 저항이 없으면 같은 속도로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잠시) 지금 든 생각인데, 저는 우주에 날라다니는 바나나 껍질 같아요. 계속 같은
속도로, 관성으로만 날라다니는 거죠. 껍질은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냥 영원히 그
속도로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잠시.

안나
그러면 내가 딱 잡으면 멈춰요?

안나, 기어위에 올라가있는 성연의 한쪽 손을 잡는다.
insert. 도로를 달리는 상연의 차.

상연(VO)
그렇겠죠?....

잠시.

안나
여행 가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상연
음... 저는 여수요

안나
왜요?

상연
여수 바다는 바다같지가 않아서요.

안나
(웃음) 바다같지 않은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상연
여수 바다는 조용해요. 파도 소리가 작게 계속 들려요. (잠시) 그러니까, 파도라는건 보통 그렇잖아요. 썩, 하고 한번 밀려 들고, 바위나 모래에 부딪히고, 물이 빠지는 동안에는 정적이 있잖아요. 여수는 그런 정적이 없어요. 조용하고... 꾸준하게 바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안나
꾸준한거 좋아하나봐요.

상연
(민망한듯 웃는다) 그런가봐요.

insert. 도로를 달리는 상연의 차
ost variation 2. 이어진다.

S# 계곡. 외부. 낮

insert. 한적한 계곡의 물줄기.
흘러나오는 OST

안나(NA)
나는 집에서 고량주를 가져왔고, 그는 집에서 만두를 빚어왔다.

계곡을 걷는 안나와 상연. 안나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있다.

insert. 계곡물에 담겨진 고량주와 녹차.
ost variation 2 end.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3.'
ost variation 3 start.
insert. 고풍스러운 찻잔에 따라지는 고량주와 녹차.

안나. 술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다.

안나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연
네?

계곡 주변에 돛자리를 깔고 앉은 둘.
앞에는 튀긴 땅콩과 찌만두가 안주로 놓여져있다.
상연의 찻잔에 녹차를 따라주는 안나.

안나
예전에, 녹차에다가 고량주를 처음 타서 먹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상연
그렇게 맛있어요?

안나
아마 곧 상연씨가 업어가도 모르게 될걸요?

상연
얼마나 마시려구요?

안나
상연씨가 업어가도 모를정도로요.

상연

여기서부터 업고 내려가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나

(속삭이듯) 제가 보기보다 가벼운 여자예요.

상연

(그렇냐는 듯) 아... 그건 몰랐네요.

상연, 잔에 든 녹차를 마신다.

잠시.

안나

중국에서는 차문화가 발달해서 차를 마신다고 안하고 차를 먹는다고 말한대요.

상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안나

우리나라에서 차가 발달을 못한게 담배랑 술의 영향이 크대요. 담배가 많이 보급이 되서 차대신 담배를 피웠고, 또 예전에는 집집마다 된장 담구는 것 처럼 술을 담갔대요. 집에 손님이 오면 차 대신 막걸리가 나오고... 막걸리가 텃텃하니까, 어떻게보면 담배랑 술이 차를 대신한거죠.

상연

(그렇냐는 듯) 음~

안나

그래서, 술을 찾잔에 따라 마시는 건 미학적으로도 좋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죠.

상연

(그렇냐는 듯) 음~

안나

(잠시) 짠 할까요?

커피잔을 부딪히는 둘

insert. 흘러가는 계곡의 물결

상연
만두는 먹을만 해요?

안나
네. 맛있어요. 상연씨가 만든 거예요?

상연
네.

안나
만두를 참 예쁘게 빚네요. 예쁜딸 낳겠어요.

상연
(웃음) 그럼 좋겠네요.

안나
만두는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상연
아, 만두 빚는게 취미예요.

안나
만두 빚는 취미라는 것도 있어요?

상연
만두 빚는 것보다 생산적인 취미도 드물죠.

안나
그래요?

상연
네. 안나씨는 만두 빚어본 적 없어요?

안나

보통 만두는 사먹지 않아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상연

언제 한번 빚어봐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피를 반죽하고, 숙성시키고, 야채랑 고기를 다듬고 손질해서 속을 만들어요.
피에 속을 채우면서 원하는 모양을 상상하고, 빚는거죠.
(만두를 빚는 시늉을 하며) 내가 빚는 아주 작은 우주.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안나

(만두를 한점 집어먹고는 그러시냐는 느낌으로) 음...

잠시.

상연

어느날 영국에 있는 인도요리사가 '사모사'라는 인도 만두를 우주로 보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카메라랑 GPS랑, 만두랑 해서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서 하늘로
쏘아올렸어요. 만두는 바다를 건너 프랑스에 떨어졌는데, 그 소식이 프랑스 뉴스에도
나오고 했죠. 영국에서 만두가 날라왔다고.

안나

(그렇냐는 식) 음...

상연

사람을 소우주라고도 그러잖아요.

안나

네.

상연

사랑도 프랑스에 떨어진 만두처럼 앞에 똑하고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해요.
작은 우주들이 마구 날라다니다가 어찌다가 제 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거죠.

안나

뉴스에도 나오고요.

상연

네. 영국에서 만두가 날라왔다. 그렇게요.

ost. variation 3 end.

insert. 흘러가는 계곡의 물결

안나(VO)

술을 취케 먹고 두렸이 앉았으니
억만 시름이 가노라 하직한다.
아해야 잔 가득 부어라 시름 전송하리라.

계곡을 바라보는 안나와, 그런 안나를 바라보는 상연.

상연

(잠시) 시를 원래 외워요?

안나

아니요... 시를 외우면 작가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요즘 조금 봤어요. 왜, 옛날에는
술마시면서 시를 외우고 했다잖아요. (잠시)
어때요?

상연

(잠시)

신선하네요.

안나

신선하다... 살면서 처음 듣는 칭찬인데요? 상연씨도 제법 신선하네요.

상연

네. 고마워요.

찾잔을 앞으로 내미는 안나.

상연, 안나의 찾잔에 고량주를 따라준다. 찾잔을 마주치는 둘.

cut to 계곡 입구.

쇼핑백과 안나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계곡을 내려오는 상연.

힘들어서 도저히 계속 업고 내려갈 수 없는지, 잠시 의자나 큰 돌따위에 안나를 내려
놓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

조금 숨을 돌리고, 옆에 누워있는 안나를 한번 속 바라보곤 다시 들쳐매고 계곡을 내
려간다.

S# 목련 나무 아래. 밤. 외부 - 안나의 꿈

(모노)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4.'

ost. variation 4 start.

가로등 아래 하얀 목련 나무.

안나(NA)

어찌다보니 목련 나무 아래에 있었다. 가로등이 있었는데 하얀 목련이 가로등 빛을 받아 정말 하얗다. 잠깐 서서 그 목련을 봤다. 목련은 다른 꽃보다 조금 일찍 피니까, 이른 봄날씨가 쌀쌀한데 목련 향도 싸하게 났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얀 목련을 보면서, '야~ 목련은 정말 하얗다. 정말 슬프다.' 그런 생각을 했다.

ost. variation 4 end.

S# 차 안. 내부. 저녁

insert.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운전석의 상연과, 조수석의 안나.

안나(NA)

눈을 뜨니 그의 차 안이었고, 해는 거의 질 무렵이었다.

안나

(잠에 깬 목소리) 아... 나 진짜 업고 내려 왔어요?

상연

어? 네... 깬어요?

안나

...위에서 깨우지 그랬어요.

상연

깨웠는데도 자길래... 진짜 업어 가도 모르더라구요.

안나

(민망하다는 듯) 아... (잠시) 힘들었죠?

상연

(잠시) 핸들이 무겁네요.

안나

네?

상연

이한테면, 지금 핸들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안나

아~ 나를 드느라 힘들어서 지금 핸들도 무겁다~ 이거죠?

상연

(잠시) 농담입니다~

안나

됐어요. (잠시) 예휴. 시집은 다갔네.

상연

네?...

안나

농담입니다~

잠시.

안나

농담이라고 해서 생각났는데, 학창시절때 만우절이 되면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전날에 마트에 가서 식빵도 사고, 양상추나 오이... 햄같은 걸 사다가 한 열 개에서 열 다섯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었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어떤건 케첩을 넣고 어떤건 마요네즈를 넣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있는 모래를 안에다가 넣어서 친구들을 줬어요.

상연

네?

안나

친구들은 한 입 베어먹고는 입에서 모래가 씹히니까, 보통은 바로 뱉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죠. 그럼 저는 '모래가 영어로 샌드잖아. 샌드 위치.' 라고 말하구요. (웃음) 그러면 이제 한 입만 먹고 남은 샌드위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그걸 보는 게 좋았어요. (잠시) 뭐랄까... 한 입먹고 버려지는 나의 정성들을 보는게...

상연

독특한 학생이었네요.

안나

네... 친구들도 저를 또라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상연

왜요? 보통 욕 아니에요?

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나는 이렇게 재밌게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좋았을까요. 모르겠네요.

상연

요즘은요?

안나

(잠시) 요즘은... 더 심한 농담이나 장난을 치고 싶은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너는 그걸 장난이라고 하냐.' 하는 정도로요.

상연

(잠시) 저한테 하는 건 어때요? 샌드위치... 삼키진 못해도 씹어는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안나

오~ 그래요?

ost. variation 5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5.'

안나

그럼 우리집에 갈래요?

암전.

잠시.

상연(VO)
네. 그래요.

잠시.

안나(VO)
저희 집 주차하기 힘든데. (잠시) 그래도 갈래요?

상연(VO)
네.

안나(VO)
네. 좋아요.

S#안나의 집. 밤. 내부

insert. 안나의 집에 진열되어 놓여진 술병들. 럼, 진, 보드카, 위스키 등등과 그 옆에
칵테일 제조 도구들이 놓여져있다.

상연(NA)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주차하기 어려웠다.

현관문 벨소리가 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안나와 상연.

안나
들어와요.

상연은 삐끗거리며 안나의 뒤를 따라 들어온다.
자신의 방에 들어온 안나. 방에는 침대와 옷걸이, 전신 거울, 전자피아노 한대와 의자
정도가 놓여있다.
적당한 곳에 쇼핑백을 내려놓고는 상연을 돌아보며 말하는 안나.

안나
앉을 데가 마땅하진 않아요.

상연
괜찮아요.

안나
우선... 침대에 앉아 있을래요?

상연
(안나의 방으로 들어오며) 네

안나
술, 마실거죠?

상연
네. 마실게요.

안나
네.

자신의 방을 나서는 안나.

상연은 안나의 침대에 살짝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있다. 방을 둘러 보며 긴 호흡을 뱉는 상연.

긴장된 표정이지만 살짝 달뜬 듯 보인다.

cut to 거실 or 주방.

술 진열대 앞에 선 안나. 진열된 술들을 바라보고, 손을 뻗어보기도 하며 어떤 술을 내갈까 고민한다.

이내 결정한 듯, 진열대에서 술 병들을 빼내고 잔을 가져와 칵테일 두 잔을 만든다.

cut to 안나의 방

침대에 눈을 감고 앉아있는 상연. 안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앉아있기 빨쭈한지 일러선다.

상연에게 술을 건네는 안나.

상연
(술을 받으며) 칵테일도 만들어요?

안나

자격증도 있어요.

상연

오...

둘다 한손엔 칵테일 잔을 들고 뽀뽀하게 서 있다.

안나

앉을 데가 딱히 없어서...

상연

(잠시 두리번 거리다) 그냥 침대에 앉아도 괜찮은데...

안나

잔이 차서요. 놓을 데도 딱히 없고...

상연

아... 간소하게 사시는구나... 그럼 그냥 바닥에 앉을까요?

안나

(민망한 듯 웃으며) 미안해요.

상연

아니요, 괜찮아요.

insert. 바닥에 놓인 칵테일 두 잔.

둘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상연

짠, 할까요?

잔을 부딪히는 둘. 둘다 술을 한 모금씩 마신다. 둘은 칵테일을 훌쩍거리며 대화를 이어간다.

상연

(잔을 내려놓으며) 맛있어요. 이걸 이름이 뭐예요?

안나
블랙 러시아어예요. 커피 리큐어가 들어가서 블랙, 보드카가 들어가서 러시아. 블랙
러시안
(잠시) 남자들이 좋아한대요.

상연
아... 그런것도 자격증 딸 때 알려줘요?

안나
(긍정도 부정도 아닌) 뭐...

상연
진짜 좋아해요?

안나
(긍정도 부정도 아닌) 뭐...

잠시

상연
(대화를 돌리려는 듯) 안나씨 거는요?

안나
아 네그로니라는 칵테일이에요. 캄파리라는 이탈리아 술이 들어가요.

상연
캄파리요?

안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마시는데, 식전주예요. 빨간색 식전주.

상연
아... 빨간 식전주...

잠시.

안나

빨간거 좋아하세요?

상연
빨간거요?

안나
네. 빨간색이요.

상연
빨간색 좋죠... 진화생물학적으로도 빨간색은 좋은 색이에요. 대부분의 과일이 익으면 빨개지잖아요? 암컷 원숭이나 침팬치도 배란기가 되면 에스트로젠 수치가 높아져서 얼굴과 엉덩이가 빨개지거든요. 수컷은 그걸 어떤 유혹의 신호로 받아들이구요. 인간도 가임기 여성의 얼굴이 비가임기 여성의 얼굴보다 붉은 기가 돌구요. 네... 뭐... 그렇죠.

안나
(잠시) 그럼, 빨간색을 진화생물학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상연
그렇게 되네요.

insert. 바닥에 놓여진 위스키 병, 노이징 글라스
ost. variation 5 end.

안나와 상연, 술에 많이 취해 보인다. 안나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고, 상연은 아직 바닥에 앉아 침대에 등을 기대고 술을 마시고 있다. 상연은 자신의 앞에 놓은 위스키를 한모금 마시고는 입을 꺼낸다.

상연
근데...

안나는 한참 얼큰하게 취해보인다.

안나
(말을 끊으며) 위스키 그렇게 먹는거 아닌데.

상연

네?

안나

위스키 그렇게 먹는거 아니라고요...

상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요?

침대에서 내려와 상연의 옆에 앉는 안나. 상연의 손에 든 잔을, 상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에 가져다가 댄다.

안나

일단 이렇게 향을 맡고,

잔을 흔들어 향을 맡는 안나

안나

(잔에 코를 박고) 헬로우?

코를 잔에서 잠시 떼고, 다시 잔에 코를 박고 향을 맡으며

안나

하우아유?

다시 코를 잔에서 잠시 떼고, 다시 잔에 코를 박고 향을 맡으며

안나

땡큐버리머치

코를 잔에서 떼고는

안나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마시는 거예요.

잔을 들어 위스키를 조금 마시는 안나. 입술은 열지 않은 채로 잠시 위스키를 입안에서 굴리다가 삼킨다.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상연을 바라보며 날숨을 뿜는다.

안나
(날숨을 뱉으며) 이렇게

상연
근데...

안나
네?

상연
(잠시) 사랑은... 뭘까요.

안나
네?...

상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나
무슨 생각이요?

상연
우리가... 앞으로 사랑을 하게 될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뜬다는 걸까... 서로의 머리를 맡아준다는 걸까...
작은 습관을 예쁘게 보게 되는 걸까, 작은 버릇들에 질려버리게 되는 걸까...
다른 무언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까... 내 어떤걸 포기해야 된다는 걸까...
(잠시)
모르겠네요.

안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비교적 확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건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건 어떤건지...
비교적 확고했어요. 행복이란 이거다. 사랑이란 이거다. 분명히 말할 수 있었는데....

(잠시.)

어느 순간부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뭘지...

(잠시.)

... 사랑은 또 뭘까요?

안나는 다소 무심하게 상연을 바라보다, 상연의 입술에 짧게 키스한다. 키스 후, 천천히 입을 떼는 안나.

안나
상연씨...

상연
네?

안나
징징대는 것도 귀엽네요.

다시 입을 맞추는 안나.

ost. variation 6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6'

안나가 상연의 셔츠를 푸는 듯, 옷 부스럭 거리는 소리.

화면 다시 돌아오고,

상연의 셔츠를 벗기려는 안나.

상연, 그런 안나를 잠깐 밀어낸다.

상연
안나씨...

안나
네?...

상연

(잠시) ... 이상하게 생각 할거 아는데요...

안나, 무슨 영문이냐는 듯 바라본다.

상연

(머뭇거리며) 안나 씨랑 자고 싶지 않아요.

안나

(뭘 말이냐는 듯) 그...래요?

상연

네... 미안해요.

잠시.

안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래요. 그럼, 술이나 마실까요?

마주치는 술잔

S#안나의 집 안. 내부. 밤

한 침대에 누워있는 안나와 상연.

안나, 상연의 위에 반 올라타 목에 키스를 하고 있다.

상연,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듯 보인다.

이질감에 뒤척이며 잠에서 깨는 상연

안나

깨어요?

상연

있잖아요...

상연, 안나를 조심스럽게 밀어낸다.

상연

다음에 해요...

상연의 말에 그의 목에서 떨어져 얌전히 옆에 눕는 안나.

안나
싫어요?

상연
오늘 말고 다음에요...

안나
음... 나 별로예요?

상연
아니요... 안나 씨 너무 좋아요.

상연 안나에게 입맞춘다.

상연
그냥, 다음에... 해요...

안나
음... (잠시)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데,
우리 둘 중 누가 나쁜 사람 할래요?

상연
(잠시)... 오늘은 제가 나쁜사람 할게요.
우리 그냥 껴안고 자요.

안나
(잠시)
오늘 잘때 코 골거예요.

상연
(웃음) 그런게 맘대로 되요?

안나
마음먹으면 못할것도 없죠.

상연
괜찮아요. 전 잠들면 누가 엮어가도 모르거든요.

안나
어, 나도 그런데. 우리 좀 비슷한 구석이 있나봐요?

상연
네... 그런가봐요... 꿈에서 봐요...

정적. 잠시.

안나, 눈을 뜨고 상연을 보는데 상연은 자는 듯, 미동이 없다.
눈을 감는 안나.
ost. variation 6 end.

안나(NA)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뵈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보이리

S#안나의 집. 내부. 아침.
OST. Variation 7 start.
타이포 'Variation 7.'
insert. 놀리는 피아노 건반

안나(NA)
술이 깼 때쯤 잠에서 깬다. 창밖으로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다.

안나는 자신의 방 창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다.
OST. Variation 7 와 연결되어 계속하여 연주를 이어간다. 창밖으로는 해가 밝고,
방은 어둡다. 창을 등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안나. 화면은 피아노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 안나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막 자고 일어난 듯, 화장은 지워져 있고 머리도

부시시하다. 눈을감고 연주를 이어가는 안나.
그렇게 한참이고 연주를 이어간다.
안나의 침대에 누워 잠에 들어있는 상연.

연주가 끝나고, 잠시.
OST. Variation 7 end.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아서 누워있는 상연을 덩덤히 바라보는 안나. 이내
옆에 누워 눈을 감는다.

S#안나의 집 주차장. 외부. 낮

타이포 'intermission'
두통이 심한지 머리를 붙잡고 안나의 집에서 나오는 상연.

상연(NA)

아침에 일이 있어서 먼저 그녀의 집을 나왔다.
그녀는 엮어가도 모를정도로 자고 있었고, 깨우기 보다는 문자를 남겼다.

빌라/원룸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는 상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다가
빠져나온다.

S#상연의 차 안. 내부. 낮

머리가 아픈지, 한손으로 관자놀이 쪽을 만지며 한손으로 운전중인 상연.

S#안나의 집. 내부. 낮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안나, 상연은 보이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는 안나.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이나, 이곳저곳 찾아본다.

insert. 현관에는 상연의 신발만 놓여져 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안나. 상연에게 온 문자를 읽고, 전
화를 건다.

안나
여보세요?

잠시.

안나
그냥... 먼저 갔길래... 잘 갔나 하구요...

잠시.

안나
밥이라도 먹고 가지...

잠시.

안나
무슨 일요일 아침부터 일이있담...

잠시.

안나
해장은 했어?

안나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페이드 아웃 된다. 화면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종종 웃음을 짓고, 편하게 등을 기대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꼬기도 하며 전화 통화를 이어가는 안나.

상연(NA)

그 이후로, 우리는 종종 같은 침대에서 눈을 떴고, 가끔씩 서로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그녀가 쑥쓰러울 때면 머리를 꼰다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무렵부터, 나는 글을 쓸때면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다.

Ost. variation 6 end.

S#주류가게. 외부. 저녁

주류가게에 들어가 있는 상연. 화면은 그런 상연을 밖에서 잡고 있다.

S#상연의 집. 내부. 저녁

insert. 와인잔에 따라지는 와인.

주방/거실에서 잔에 따른 와인을 들어 흔드는 상연.

약간은 서툴어 보인다.

코를 잔에 박고 향을 맡는다.

와인을 마시고, 맛이 괜찮은 듯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더니 병을 들어 라벨을 한번 살핀다.

cut to. 상연의 방 or 식탁

스탠드 불을 켜두고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상연.

옆에는 와인잔이 놓여져 있다.

와인잔을 훌쩍거리며 타이핑을 계속 하는 상연의 뒷모습

S#안나의 집. 내부. 낮

안나의 집 현관 앞에 놓여있는 택배상자.

안나가 택배 상자를 열자, 들어있는 싸구려 플라스틱 얇은병이 책상.

주방에서 만두 소를 손질하는 안나. 두부와 만두, 야채등을 손질한다.

cut to. 안나의 방.

플라스틱 얇은병이 책상에 앉아 만두를 빚는 안나.

만두를 빚는 안나의 손과 그 과정이 보인다.

insert. 도시락 통에 채워진 만두. 뚜껑이 닫힌다.

cut to. 거실 or 주방 식탁

도시락 통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서는 안나.

S#골목길. 외부. 오후

골목길을 걷고 있는 안나. 운동화 차림에 간편한 복장이다. 한 손에는 도시락 통을 들고 있다.

S#상연의 집. 내부. 저녁/밤

insert. 냄비안의 감바스와, 옆에 놓인 와인 병.

OST. Variation 8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8.'

상연의 집 현관문이 열리면, 안나와 상연 함께 들어온다. 상연이 먼저 들어오고, 안나는 여기 저기 둘러보며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온다. 상연은 부엌에서 냄비에 불을 올리고, 안나는 그런 상연의 뒤를 따른다.

상연
새우 먹지?

안나
없어서 못 먹지~

상연
감바스 해줬는데, 와인이랑 같이 먹자.

안나
오~ 그런 것도 할줄 알아?

상연
(냄비를 뚜껑을 열고 간을 본다) 이걸 쉬운거라.. (잠시) 보통은 시켜먹는데, 해주고 싶어서.

안나
(상연을 뒤에서 품에 안으며) 예빠라.

안나가 상연을 따라 간 주방에는 다마신 와인병과 아직 따지 않은 와인 병들이 대여섯개 놓여져 있다.

와인들을 발견한 안나.

안나
술, 머리 아파서 잘 안마신다고 하지 않았어?

상연

아... 요즘 와인 먹고 있어. 글 쓸때 훌쩍훌쩍하면 잘 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맛도 있고.

안나

(그렇냐는 듯) 음~ (잠시) 그럼 오늘은 각 일 병?

insert. 테이블 위에 놓여진 감바스 냄비와 와인잔에 따라진 와인. 감바스 냄비는 거의 비어있다.

OST. Variation 8 end.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안나와 상연.

상연과 안나, 둘다 식사와 음주를 어느정도 끝마쳤는지 알뜰알 해 보인다.

각자의 옆에는 거의 다 마신 와인병이 한병씩 놓여져 있다.

묘한 기류가 흐르며 실실 웃는 안나. 둘은 와인을 조금씩 훌쩍이며 이야기한다.

상연

술 근데 진짜 잘마셔...

주량이 어느정도야?

안나

몰라? 얼마나 오래 마시냐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

(잠시) 그냥 그렇다는 얘긴데, (잠시) 나는 알콜 중독이야.

상연은 그저 덤덤하게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안나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필름이 끊긴지 꽤 오래 됐어.

2주정도 병원에 입원 한 적도 있어.

술을 끊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야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껴.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상연

(그렇냐는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안나

있잖아, 나 사랑해?

OST. Variation 9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9.'

다시 화면 돌아오고.

상연

(갑자기 왜 물어보냐는 식) 어?... 어... 사랑해.

안나

(차분히) 왜?, 얼마큼?, 어떻게?, 언제부터?

상연, 살짝 웃으며 고개를 떨군다.

잠시.

상연

이렇게 말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안나

뭐.

상연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됐네.

안나

맞아. 그렇게 말하면 안돼.

상연

(곤란하다는 듯 웃는다) 그... 무색하다는 말이 있잖아.

너는 내 물이고, 시고, 소설이고, 그 소설의 첫 문장이고, 마지막 문장이야... 라고
말해도, 그게 다 무색하잖아. (잠시)

응... 사랑해.

안나

사랑해?

상연
사랑해.

안나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베시시 웃는다.

안나
(잠시) 근데... 왜 나 안건드려?

긴 정적.

안나는 상연의 눈치를 살피고, 상연은 안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와인잔을 툭툭 건들
이다 와인을 한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꺼낸다.

상연
그냥 그렇다는 애긴데... 나는 섹스가 무서워.

안나
(무슨 말이냐는듯) 어?

상연
일종의 공포증이라고 하던데,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해야할까...
내 몸안에 내 머리만한 벌레가 기어다니는거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할까...
불안, 공황... 그런거지.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안나
(잠시)... 어쩌다가?...

상연
(잠시)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네...

안나
어...

상연
이유... (잠시) 이유가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인거잖아.
'그런사람이다.' 라는 사실 말고는 남을 게 없지 않나?...

안나
그런가...

OST. Variation 9 end.
정적. 잠시.

S#상연의 방. 내부. 밤

한 침대에 누워있는 안나와 상연.
상연은 안나를 껴안고 잠에 들어 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안나. 이따금씩 껌뻑껌뻑 눈을 깜빡인다.

안나(NA)

그날 밤은 술에 취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심지어 다음날 필름도 끊기지 않았다.
긴 새벽동안 그는 나를 끌어안고 잠에서 깨지도, 뒤척이지도 않았다.
그가 죽었나. 생각도 들었지만, 아주 작고 꾸준하게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내 허리 위로 올려둔 팔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날 누르고 있었다.
그의 팔과 내 허리가 완전히 붙어 하나가 된게 아닐까, 생각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의 품에서 나는 문득 피아노가 치고 싶어졌다.
정확하게는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쓰고 싶었다.
아주 하얗고, 아주 검은 건반들 앞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었다.

껌뻑껌뻑 눈을 깜빡이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안나.

안나(NA)

하지만 그날 밤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팔과 나의 허리가 하나가 되어, 나는 움직이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평생 곡을 쓰지 못하게 된 건 아닐까.
어느날 갑자기 하나의 꼬리가 더 생겨, 헤엄치는 법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떠올랐다.
좌우로 움직이는 두개의 꼬리가 서로 부딪히며 평생 헤엄 치지 못하고 화석이
되어버릴 물고기.
그 물고기가 그의 방 천장에서 계속 헤엄을 치고 있었다.

암전.

S#안나의 집 안. 내부. 새벽

OST. Variation 10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0.'

피아노를 치고 있는 안나. (Ost variation 10 에 이어서)

안나(NA)

그 이후로, 우리는 종종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서로의 머리를 말려주었지만, 같이
잠에 들진 못했다.

그가 술을 마시고 먼저 잠이 든 새벽이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곡을 쓰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치며, 오선지에 이런 저런 악보를 그리는 안나.

S#안나의 집 안. 내부. 낮

안나의 침대. 상연은 침대에 앉아 있고 안나는 상연의 맞은 편에 서서 머리를 말려주
고 있다.

안나와, 상연과, 드라이기 소리 등은 들리지 않고 음악 소리가 오디오를 채운다.

다정하고 담백한 연인의 모습.

Ost. variation 10. end

S#안나의 집 앞. 외부. 낮

insert. 여름인 듯 푸르른 나뭇잎. 매미소리도 들린다.

안나(NA)

어느덧 매미가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그는 펜션을 예약했고, 나는 술을 챙겼다.

안나의 집 앞에 멈춰있는 상연의 차.

상연, 안나의 캐리어 두 개를 트렁크에 넣어준다. 안나는 조수석에 타고, 상연도 차에
타 출발한다.

S#상연의 차 안. 내부. 낮

차 안의 남녀, 카메라는 그런 두 남녀를 뒷좌석에서 넓게 잡고 있다.

상연
짐이 많네?

안나
원래 여자는 이것저것 다 필요한 법이거든.

상연
트렁크 하나는 술 아니야?

안나
오늘 밤에 와인이 땡길지, 위스키가 땡길지, 어? 칵테일이 땡길지. 어?
(잠시)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상연
(잠시_안나 눈치를 한번 쓱 본다)
근데, 그게 캐리어 하나를 따로 챙겨야 할 정도로 많아?...

안나
어디가면 항상 그게 아쉽다고... "아, 그거 가져올 걸" 그 생각이 들면 바로 집 생각이
난다니까?
여행갈때는 손톱깎기도 챙겨가야 된다고.

상연
손톱, 깎고 가면 되잖아...

안나
뭐 갖고 왔냐고 물어보기만 해봐. 절대 안줘.

잠시.

안나
근데 우리 어디가?

상연
섬진강이랑 해서 전라도 쪽으로 가보려고.
바다도 보고.

안나
섬진강이 전라도야?

상연
응. 뭐 곡성이랑 신안이랑해서...

안나
(그렇냐는 듯) 음~

상연
할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셔. (잠시) 돌아가신지, (잠시) 6년이네... (잠시)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그림 책을
읽어주셨는데,
내가 그림으로 된 동물을 가리키면서
'할아버지 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무심하게 알려주는 식이었지.
(잠시)
전라도 동물들은 귀여운거 알아?

안나
(무슨 말이나는 듯) 어?

상연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까마귀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 애는 뭐야?' 하면,
'까마구.' 하시고.
여우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 애는 뭐야?' 하면,
'여시' 하시고. 내가 '아니야~ 애는 여우야~' 하면,
할아버지는 다시 '여시' 하시고. (잠시)
되게 옛날이었을텐데, 할아버지가 '여시' 하는 목소리가 아직 기억이 나더라고.

insert. 창밖으로 지나쳐가는 풍경.

안나
근데 왜 섬진강이래?

상연
뭐... 이름이 예쁘잖아. 섬진.

안나
섬진강도 꾸준한가?

상연
강은 다 꾸준하지.

안나
그렇지.

안나
맥주중에 섬진강이라는 맥주 있을거 같지 않아?

상연
어?

안나
왜, 요즘 국산맥주 많이 팔잖아. 한글이름으로 지어가지고.

상연
(그렇냐는 듯) 음~

안나
전라도는 소주 이름이 예쁜데.

상연
전라도는 소주가 달라?

안나
어. 전라도 소주는 잎새주.

상연
(그렇냐는 듯) 음~

잠시.

S#섬진강. 외부. 낮.

OST. Variation 11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1.'

insert. 섬진강 물이 흐른다.

상연(NA)

가는 길에 그녀는 잎새주 두 병을 샀고, 나는 찰옥수수를 몇개 샀다.

insert. 돛자리 위, 잎새주 한 병과 찰옥수수. 한병은 이미 비워져 누워 있다.

insert.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지고, 술을 마시고 내려놓는 안나.

강가에 강을 보고 앉은 두사람. 안나는 상연의 어깨에 기대고 앉아 있다.

화면은 그런 둘의 등을 담는다.

안나

강 소리가 생각보다 크구나.

상연

어...

안나

좋다...

상연

응...

잠시.

상연(NA)

그녀는 쓸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종종했다. 그녀가 취해서 말할 때면, 나는 이따금씩 죽고 싶어지면서도, 살고 싶어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안나

있잖아, 사람은 좋은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

상연

응

안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잠시)

여행갔던 추억이나,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 그 사람과 함께한 장소, 음식, 분위기,
공기...

(잠시)

그때 좋았는데... 하고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버리면, 또 슬퍼지고, 슬퍼져서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럼 또 슬퍼지고. 계속 슬퍼지는 거야.

상연

슬픈 너도 사랑해.

안나

말은 잘해요.

insert. 흐르는 섬진강.

안나(NA)

그가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때면, 나는 이상하게도 문득 그게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나도 언젠가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쓴 이야기 중
하나가 되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상연

고등학교 1학년때 만났던 여자애 이야기야.

(잠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3월에 입학해서, 4월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중학교때는 여자애들 앞에서 말도 못했는데 말이야.

어쩌면 나도 그런 내가 싫었는지 허겁지겁 여자애들한테 말을 붙이고 다녔나봐.

안나

왜?

상연

달라지고 싶었던거 같아.

안나
어떻게?

상연
그냥 ... 그런 애들 있잖아.
지금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고, 어떻게든 달라질려고 발버둥 치는 애들...

안나
음...

잠시.

상연
이게 좋은 추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
(잠시)
여름에 밝은 덥고, 돈은 없으니까 그 친구랑 하루는 근처 지역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서, 테이블 자리에는 못 앉았고, 책장쪽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어. 그 친구는 조금 읽다가 졸렸는지 내 무릎을 베고 잠에 들었고,
나는 책을 읽기도 하고 여자친구 귀와 목 언저리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도서관 폐장시간이 다가와서 밖으로 나왔어.

(잠시)

그 친구랑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데, 앞에 엄청 큰 버드나무가 있는거야. 바람이
적당히 불고 나무가 흔들리는데, 나무를 보다가 문득 '아, 죽을때까지 나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거야. 딱히 별나진 않은 순간이었는데 말이야.

안나
슬프다.

상연
그런가...

잠시.

안나, 아이고 하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서히 앞으로 걸어가 강에 발을 담근다.
발을 담그고 서 있는 안나.
흐르는 섬진강과 강물 속의 안나의 발.
안나, 섬진강 물결에 허리를 굽혀 한 손을 담근다. 스쳐 지나가는 물결들.
안나, 허리를 펴고 다시 상체를 든다.
뒤를 돌아 상연을 바라보는 안나.

안나(NA)
절대 잡히지 않는 나의 물.

OST. Variation 11 end.

S#펜션 앞. 내부. 저녁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간. 펜션 앞으로 상연의 차가 들어온다.

안나(VO)
피곤해?

상연(VO)
응... 피곤하네... 바다는 내일 볼까?

안나(VO)
응. 그게 좋겠다.

상연(VO)
바로 저녁 먹을거지? 바베큐 해달라고 할게.

안나(VO)
응. 좋아.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나오는 둘.
짐을 내리고 방에 들어간다.

S#펜션 바비큐 장. 외부. 밤

펜션 바비큐장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안나와 상연.
고기를 구워 먹은 듯 하다. 굽거나 굽지 않은 남은 고기 몇점과 양파, 버섯, 쌈채소

등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다.

둘은 이미 술에 취한 듯 하고, 다 마신 소주 병 3~4개가 식탁에 놓여져 있다.

안나

(잠시) 재밌는 얘기 해줘.

상연

재밌는 얘기?...

안나

응.

상연

음...

안나, 상연을 빤히 바라본다.

잠시.

OST. Variation 12 start.

타이포 'Variation 12.'

상연의 이야기를 따라 동화같은 그림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

상연(VO)

옛날 어느 강가 작은 마을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잠시)

황소개구리는 고집이 너무 썩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자기 마음대로만 했어.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황소개구리한테 노래를 가르쳐줬어.

(엄마 목소리를 내며) '자 아들이~ 따라 해 보렴,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러자 황소개구리가 말했어.

'아!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맘에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그런 상연을 웃기다는 듯 바라보는 안나.

상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애니메이션/ost.

상연(VO)

이렇게 고집이 센 황소개구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엄마 개구리가 '아들아,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어서 자렴.' 이러면 '아 싫다고! 좀 내
맘대로 자게 냅뉘! 엄마 먼저자!' 이려고, 엄마개구리가 '아들아,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렴' 하면, '학교는 지랄, 내 맘대로 살거야!' 했지.

(잠시)

어느날 엄마개구리는 숲에 황새가 많이 다닌다는 옆집 아줌마개구리의 말을 듣고
황소개구리에게 말했어.

'얘야, 요즘 숲에 황새가 많이 다닌다더라, 꼭 조심해서 숲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러자 황소개구리가, '어휴~ 엄마, 엄마 같은 사람을 뭐라하는지 알아? 소시민이라고
해. 소시민. 언제까지 그렇게 남들 눈치만 보고 살건데. 정말 한심하기는.' 라며,
긁등으로도 듣지 않았어.

상연, 뒷 이야기를 생각하는 듯 술을 한모금 마시려 하고, 안나는 그런 상연의 잔에
자신의 잔을 맞추고 술을 마신다. 안주를 한 점 집어 먹는 둘.

상연(VO)

어느 날 황소개구리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친구 개구리 중에 제일 덩치가 큰
개구리가, '얘들아, 숲에는 뱀 형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강가에 가서 놀자'고
말했는데, 황소개구리는 그 말을 듣고 '뱀 형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쫓기는,
어휴 한심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할테니까,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어.
그래서 친구개구리들은 강가에 가서 놀았고, 황소개구리는 혼자가 되었지.

(잠시)

황소개구리는 오늘은 더 깊은 숲에서 놀기로 마음 먹었어. 더 깊이 들어 갈수록
황소개구리는 엄마개구리랑 친구 개구리들이 멍청하게 느껴졌지. 그런데, 커다란
황새가 황소개구리 앞에 나타난거야.

황소개구리를 향해 커다란 부리를 내밀고 잡아 먹으려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엄마개구리가 나타나서 황소개구리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 황소개구리와
엄마개구리는 집에 도착 해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지.

안나

근데, 이거 표절 아니야?

상연

페러디라고 하지.

(잠시)

상연(VO)

엄마개구리는 황소개구리를 구하려다가 바위에 다리를 부딪쳤는지,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엄마개구리의 다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부어올랐지.

(잠시)

다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과 다름없는 야생의 세계에서 엄마개구리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어느날 황소개구리를 불러다가 이런 말을 했지.

'아들아, 앞으로도 네가 하고 싶은 건 모든 하고 살렴. 절대로 남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네가 묻고 싶은 데다 나를 물어주렴.'

황소개구리는 그저 울기만 했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엄마개구리는 결국 눈을 감았어.

한참을 울던 황소개구리는, 엄마개구리의 유언대로, 엄마를 자신이 묻고 싶은 곳에 묻기로 했어.

그런데, 황소개구리는 자기가 엄마개구리를 어디다가 묻고 싶은지 모르겠는거야.

강가에다 묻고 싶은지, 산에다가 묻고 싶은지.

황소개구리는 그렇게 자기 마음도 모르게 된거야.

엄마를 어디에 묻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누굴 만나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게 된 황소개구리는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굴 개굴 하고 운다는 이야기야.

OST. Variation 12 end.

상연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나.

안나

음~ (잠시)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했는데, 재밌는 얘기 해주는 사람 처음 봐.

상연

(무슨 얘기냐는 듯) 응?

안나

보통은 뭐 주변에 누가 어쩐다느니, 그랬다느니... 보거나 들은거 얘기하잖아.

상연

그런가. 재밌는 얘기 해달라는 사람도 처음 본 거 같은데.

안나
(그렇냐는 듯) 음~ (잠시) 치울까?

S# 밤 바다(안나의 꿈). 외부. 밤.

OST. Variation 12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2.'

밤 바다. 파도가 친다.

밤 바다 앞에 서 있는 상연의 뒷모습.

안나(NA)
파도가 철썩, 철썩 치고 있었다.
그는 바다 앞에 서 있었다.

바다를 향해 한 발자국 씩 걸어 들어가는 상연.

화면은 그런 그의 뒷모습만을 담는다.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빠져나갈 때마다. 그는 바다를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갔다.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나서 생기는 정적.

그 정적을 참기 힘든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바다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바다가 되어 버릴까봐, (잠시) 한 번 밀려 들어오고 정적과 함께

빠져버리는 파도가 되어 버릴까봐... 무서웠다.

점점 커지는 파도 소리와 음악소리.

S# 펜션 안 or 거실. 내부. 밤.

침대 or 소파 에 누워있는 안나.

눈을 뜬다. 덮여진 담요 or 이불은 상연의 손길이 닿은 듯 하다.

펜션 방 안 or 거실은 어둡고, 무드등 정도만 켜져 있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는 안나. 조용하다.

이내 일어서서 상연을 찾아 다니는 안나. 상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화장실 문을 여는 안나.

화장실 안에 있는 상연을 발견한 듯. 문은 열어둔 채로, 화장실 앞에 선다.

화장실 안에 있는 상연의 목소리가 울리며 들린다.

상연(VO)
어... 깎어?

잠시.

상연(VO)
왜?... 들어올래?... 히노끼 탕인데...

안나
상연아.

상연(VO)
어?...

안나
왜 지금 씻어?...

상연(VO)
어?... 왜 지금 씻냐고?...

안나
어.

상연(VO)
밤... 이잖아... 씻고 자야지..

안나
(그렇냐는 듯)어... 근데... 왜 지금 씻어?

상연(VO)
그럼... 언제 씻어?...

안나
(잠시) 아니야... (잠시) 씻어...

상연(VO)
어...어...

화장실 문을 닫아주는 안나. 침대로 돌아가 눕는다.

S# 펜션 거실. 내부. 낮

점심을 먹고 있는 안나와 상연. 묘한 기류가 흐른다.

둘 다 말 없이 조용히 밥을 먹는다.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상연.

상연

내가 어제 잘못된 거 있어?

안나

응?... 아니... (잠시) 왜 그렇게 생각해?

상연

(잠시) 너 기분 안좋아 보이니까 그렇지 뭐...

안나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래...

상연

(그렇냐는 듯)음...

식사를 이어가는 둘. 어색한 기류.

상연

(반찬 하나를 가리키며 먹어보라는 듯) 맛있다.

안나

응

안나, 상연이 가리킨 반찬이 아닌 다른 반찬들에만 손이 간다.

상연

(눈치를 보다 안나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맛있어. 먹어 봐.

안나

(자신의 밥 위에 올라간 반찬을 보며)

나. 근데, 누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 싫어 하는데...

상연

아... 그래?

정적. 눈치를 보는 상연.

상연, 안나의 밥 위에 올려 둔 반찬을 도로 젓가락으로 집어 자신의 입에 넣는다.

OST. Variation 12 end.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안나.

뭔가 실수한 느낌이 드는지, 안나의 시선을 회피하는 상연.

잠시.

가볍게 웃음이 터지는 안나.

안나

야. (웃음) 줬다 뺏는 게 어딴냐?

상연

(입에 음식을 씹다가) 음?

(잠시)

다시 주까? (입 안으로 젓가락을 넣으며)

안나

(웃긴 듯) 아~ 진짜! (상연의 팔을 잡으며) 하지마.

상연

(익살스럽게) 아직 두 번밖에 안씹었는데.

안나

아, 진짜 더러워! (웃음)

하하호호.

S# 펜션 안 (목욕실 탕). 내부. 낮

OST. Variation 13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3.'

insert. 욕조에 받히는 온수. 물을 잠그는 상연의 손

insert. 욕조 옆에 놓여진 데킬라, 옆에는 그릇에 담겨진 라임 슬라이스, 소금.

욕조에 들어가 있는 상연과 안나. 서로의 옆에 앉아 있고, 화면은 그런 둘의 등을 잡는다. 둘의 등 너머로 난 창으로는 나무들이 보이고 별이 들어오고있다.

편안하고 노곤한 분위기의 둘.

잠시.

상연
좋다.

안나
응. 좋다.

잠시.

안나, 샷 잔 두개 에 데킬라를 따른다.

안나
데킬라 먹어본 적 있어?

상연
아니. 어디서 본 적은 있어. 소금 핥아 먹는 거.

안나
손 쥐봐.

상연, 안나에게 손을 내민다.

안나, 상연의 손등에 라임 슬라이스를 문지르고, 소금을 뿌린다. 상연의 손등위에 소금을 핥고는 샷잔을 입에 털어 넣는다. 라임슬라이스를 입에 무는 안나.

안나
이렇게 먹는 거야.

상연

술이 야하네...

안나

(라임과 소금이 담긴 접시를 내미며) 해 봐.

상연, 접시를 받아들고 안나의 손을 달라는 손짓을 한다.

안나, 손을 주는 대신 고개를 옆으로 꺾는다.

안나

손 말고, 여기다 해 봐.

잠시.

안나

그냥 술마시는 거잖아. 이정도도 무서워?

상연, 별 말없이 안나의 목에 라임을 문지르고, 소금을 묻힌다.

가만히 있어주는 안나, 상연 안나의 목의 소금을 핥는다.

안나, 상연에게 샷 잔을 건넨다.

안나

원, 샷!

술을 마시는 상연, 안나는 상연의 손에 들린 접시에서 라임을 집어 입에 문다.

안나

(라임을 입에 물고는) 자.

안나가 입에 물고 있는 라임에 다가가 입에 같이 무는 상연.

서로를 보고 웃는 상연과 안나.

안나, 자신의 입에 문 라임을 빼고 상연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춘다.

안나

잘하네~

상연

잘할 게 뭐있나...

안나, 상연의 잔을 받아 자신의 잔과 상연의 잔을 다시 채워 둔다.
욕조에 깊이 몸을 담구는 안나.

안나
술 마시면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나 술 좀 줄일까 봐.
(잠시)
어떻게 생각 해?

상연
뭐... (잠시) 화이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나
있잖아...

상연
응?

안나
(잠시)
내가 널 바꿀 수 있을까?

OST. Variation 13 end.

상연
(잠시)
응...

잠시.

상연
씻고 바다나 보러 갈까?

안나
(잠시) 그냥 오늘은 나가지 말고 쉬자.

상연

어디 아파?

안나

아니... 그건 아닌데...

(잠시)

어제 바다 꿈을 꿨다? 밤바다 앞에 니가 서있는 거야.
근데 애가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더라고. 너무 어두워서 들어가지 말라고 할라는데,
입이 안떨어 지는 거야.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애가 나를 떠나 갖고 바다가 될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파도가 밀려오고 빠질 때마다 한 걸음 씩 바다로 들어가는데,
꿈인데 막 눈물이 나는거야. 근데 또 소리는 안나오고.

상연

무서웠어?

안나

무섭다기 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무치다?

사무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인거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

상연

(그렇 냐는 듯) 음...

잠시.

안나

어제 개구리 얘기 있잖아.

상연

응.

안나

나는 호수가 좋은 거 같아.

상연

뭐가?

안나
개구리 엄마 묻기에.

상연
왜?

안나
사람은 죽으면 물이 된다는데, 바다나 강은 떠나 가버리잖아.
호수는 계속 거기 있는거 같고.

상연
음...

S# 펜션 안. 내부. 저녁.

상연은 설거지를 하는 듯, 식기 덜그럭 거리는 소리와 물소리가 들린다. 안나는 침대에 앉아 텔레비를 보며 웃고 있다.

상연(VO)
자기 전에 맥주? 와인?

안나
응?

상연(VO)
맥주 마실 거냐고, 와인 마실 거냐고.

안나
아~ 글썸. 조금 있다가 내키는 걸로.
(잠시)

상연, 설거지를 끝낸 듯, 물 소리가 끊긴다. 안나가 앉아 있는 침대로 오는 상연. 철퍼덕 떨어진다.

상연

아이고 되다.

안나
수고했어요~ (잠시) 근데, 원래 사투리써?

상연
응? 뭐가?

안나
되다며, 그거 경상도 사투린데?

상연
아, 우리 할머니가 부산 사람이라.

안나
(그렇냐는 듯) 음~ (뭐가 생각 난 듯) 아,

침대에서 일어나는 안나. 캐리어에서 멜로디언을 꺼내와 침대 말에 앉는다.

상연
애도 아니고, 놀러오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

안나
왜~ 피아노 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

상연
그래... 피아노를 들고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안나
내가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 피아노.

상연
아, 그랬나.

안나
어! 우리 처음 봤을 때 기억 안나?
얼마나 됐다고?

상연
아... 아, 기억나...

안나
자기가 가르쳐 달랬으면서.

상연
기억나~

멜로디언의 리드 부분을 상연에게 건네는 안나, 상연은 침대에 엎드려 누워 리드를 받는다.

안나
불어봐.

상연, 멜로디언에 숨을 불어 넣고, 안나는 연주를 한다.
안나의 멜로디언 연주가 잠시 이어지고, 상연은 숨을 불어 넣다가 이내 숨이 막히는
듯 헉헉대며 숨을 고른다. 그런 상연이 우스운 안나. 웃는 두 사람.

안나
(웃으며) 아니 (자신의 목 언저리에 손을 얹고) 읊! 읊!읍읍!
이걸로 부는거야. 읊!읍!읍!
이거 해봐.

상연에게서 리드부분을 뺏고, 건반부를 건네는 안나.
자신의 리드부분을 불고, 상연에게 어서 연주 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 거리는 안나.
상연, 학교종이 땡땡땡을 조잡스럽게 치다가 음을 뺏사리를 낸다.
민망한듯 웃는 상연과, 그런 상연이 웃긴 안나.

안나
솔미래미도. 솔미래미도.

상연, 솔미래미도를 친다.
웃는 상연과 안나.

OST. Variation 14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4.'

insert. 티비 화면.

cut to. 불을 끄고 누워있는 두사람. 무드등만 켜져 있다. 티비는 켜져 있고, 둘은 침대에 누워 맥주를 마시고 있다.

둘다 티비를 보고 있다. 조금 웃기도 하고 맥주를 훌쩍거리기도 한다.

상연
사랑해.

안나
응?

상연
응?

안나
뭐라고?

상연
응?

안나
사랑한다며.

상연
내가?

안나
어. 사랑해. 그랬잖아.

상연
그랬나...

안나
뭐야... 썩쓰러워?

상연
됐어... 자자... (리모컨을 찾으며)

티비를 끄는 상연. 침대로 파고든다.

안나
다시 말해줘. 어?

상연
(안나로부터 등을 돌리며) 싫어... 부끄럽다고...

안나
다시 해줘~ 응? 빨리~

상연
자자...

안나
안 해주면 계속 구찮게 군다~

상연
구찮게 시리... 자자...

안나
아~ 한번만~

상연
자자~... 즐려....

안나
그거 한 번 안해주냐... 진짜 너무 한다. 너무 해.
(잠시)
자냐?

정적.

안나
나도 잔다.

상연과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눕는 안나.
정적.

상연
사랑해

안나, 다시 등을 돌려 상연의 등을 바라보며 껴안는다.

안나
(웃으며) 나도 사랑해

상연, 등을 돌려 안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 안나를 안아준다.
포개져 있는 두 남녀의 발.
OST. Variation 14 end.

S#호수. 외부. 밤. (상연의 꿈) - mono
OST. Variation 15.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5.'
호수 앞에 서 있는 안나의 뒷모습.

상연(NA)
꿈 속에서 그녀는 호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호수에 들어 갈 것을 예고라도 하듯이 나를 돌아보았다.

안나, 고개를 돌려 카메라 쪽을 바라본다.

상연(NA)
그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호수 안으로 들어갔다.

안나, 호수 안으로 한 발자국씩 천천히 들어간다.

상연(NA)
그녀가 호수로 들어가는 발걸음에서 끼익-끼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점점 커지는 끼익-끼익- 하는 소리

상연(NA)

그 발소리를 견디기 힘들어서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호수 안 쪽으로 들어가는 안나.

상연(NA)

무언가에 막힌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천천히 호수 안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안나, 이제는 목정도만 물 밖에 남아 있다.
계속해서 들리는 끼익-끼익-소리.

상연(NA)

그녀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런 내가 한 없이 싫어져서, 눈물이 흘렀다.

호수에 머리 끝까지 들어간 안나. 끼익-끼익 하는 소리는 점점 커진다.

암전.

S#펜션 안. 내부. 밤.

끼익-끼익 하는 침대 소리.

화면 밝아지면, 침대위에 누워있는 상연의 상반신.

그의 허리춤에 안나의 무릎이 보인다. 상연의 위에 올라타 있는 듯 하다.

상연, 잠에서 깬 표정으로 천천히 안나를 바라본다.

무표정하게 안나를 바라보는 상연, 안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녀의 무릎 등,

하반신 움직임만 보인다. 안나의 달뜬 숨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상연은 그런 안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잠시.

안나

일어 났어?

상연

나... 하기 싫어...

상연의 상반신으로 쏟아지는 안나.

상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썩임은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 한다.

안나

나도 알아...

상연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애무하는 듯 한 안나.

안나

근데... 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두 팔로 얼굴을 쓸어내며 눈을 가리는 상연. 안나의 들썩임은 멈추지 않는다.

안나, 다시 자신의 상체를 들고 상연의 얼굴을 가리는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함께 가려준다.

달뜩 호흡의 안나와 시체같은 상연.

그런 움직임이 한동안 이어진다.

OST. Variation 15. end.

S#펜션 앞. 외부. 밖 - (sound mute)

펜션 문을 열고 나온 안나.

절망적이다.

자신의 아랫배를 주먹으로 치기 시작한다.

씨발, 씨발 거리며 자신의 아랫배를 치더니 울먹인다.

이내 주저 앉아서 울기 시작한다.

암전.

S#펜션. 내부. 낮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상연, 안나가 보이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는 상연.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이나, 이곳저곳 찾아본다.

상연(NA)

일어나보니 그녀도, 그녀의 짐도, 술병들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져있었다.

insert. 현관에는 상연의 신발만 놓여져 있다.

현관 앞에서 없어진 신발을 확인하고는 안나에게 전화를 거는 상연.

받지 않는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는 상연.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는 상연.

상연(NA)

한참을 기다리다, 퇴실하라는 전화가 오고나서야 펜션을 나셨다.

S#펜션 앞. 외부. 낮

차 옆에 난감하다는 듯 서있는 상연.

이내 차에 타고 어딘가로 향한다.

S#바닷가. 외부. 낮

해변에 도착한 상연. 설렁 설렁 걸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안나를 찾는 듯, 아니면 바다를 둘러보는 듯 알기 힘들다.

잠깐 멈춰 둘러 보기도, 바다를 보기도, 바닥의 모래를 보기도 하며 걷는다.

잠시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상연.

insert. 파도

S#상연의 차 안. 내부. 낮

운전 중인 상연.

상연(NA)

그녀의 집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얼굴을 볼 순 없었다.

S#안나의 집 앞. 내부. 낮

안나의 집 앞 현관. 계단을 올라오는 상연. 안나의 집 앞에 선다.

현관벨을 누르는 상연. 잠시.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드려본다.

옆집인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옆집의 눈치를 보더니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상연.

개가 계속 짖는다.

눈치를 보다가 자리를 떠나는 상연.

S#상연의 집. 내부. 낮

OST. Variation 16. start.

화면에 타이포 'Variation 16.'

상연의 집, 거실/주방의 식탁.

잔에 따라지는 위스키.

위스키를 마시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상연. 한손으로는 마우스 휠을 돌리고 있다.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본다.

상연(NA)

그 이후로 그녀를 볼 수 없었고, 나는 취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쓸 수 없게 되었다.

항상 취해 있으려고 노력했고, 맨 정신인 상태를 견딜 수 없었다.

그마저 취해서 쓴 글들도 다음날 취해서 다시 보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지겨운 사랑이야기와 오글거리는 자의식과잉 범벅인 글들을 쓰고 지우고 반복했다.

노트북에 머리를 박고 한숨을 내뿜는 상연. 두통이 심한듯 양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누른다.

그리고 잠시.

상연(NA)

뭘 모르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다는 말만 입에서 맴돈다.

모르는 것에 대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 고개를 들고 타이핑을 시작한다.

상연(NA)

내일 다시 지울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오늘은 한 남자가 알콜 중독자가 된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암전

S#하천(상연의 꿈). 내부. 낮 - (mono)

청계천 등의 하천. 물소리가 들린다.

화면 밝아지면, (모노)

왜가리 한마리, 하천에 유유히 서 있다.

물고기를 잡거나, 물을 마시는 왜가리.

상연(NA)

어쩌다가 청계천에 갔다. 날이 좋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목이 긴

새를 보았다.

(잠시)

저 새의 이름은 정말 왜가리일까. 어쩌면 다른 멋진 이름이 있지는 않을까.

(잠시)

정말 왜가리일까...

하천에 서 있는 왜가리. 부리로 물고기를 먹거나 한다.

OST. Variation 16. end.

S#카페 안. 내부. 밤

카페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상연, 비가 오고 있다.

Ost. theme. start.

화면에 타이포 'Theme.'

상연(NA)

그녀를 처음 본 날도 비가 왔었다.

카페의 가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소개팅녀(VO)

안녕하세요~ 상연 씨 맞으시죠...

상연

(소개팅 녀를 바라보는 듯) 안녕하세요.

소개팅녀(VO)

비가 많이오네요 (웃음)

자리에 앉는 소리

상연

네... 많이 오네요...

잠시.

상연
뭐 좀 시킬까요?

소개팅녀(VO)
저는... 아메리카노요

상연
(메뉴판을 보는) 저는...

잠시.

상연
혹시... 술 마셔도 될까요.

end.

안나의 엔딩 OST.

안나의 노래 소리와 함께 크레딧.

안나와 상연이 만나고 함께한 장소들이 짧게 짧게 지나간다.